경성제대 교수를 지낸 일본의 과학사학자 '야지마'

글 | 박성래 _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명예교수 parkstar@unitel.co,kr

올해는 일본의 과학사학자 야지마 스케도시(矢島祐利 1903~1995)가 죽은지 꼭 10년이 되는 해다. 1940년대 이후 90년대까지 반세기 동안 일본에서 수많은 과학사 책을 써서 과학의 대중화에 크게 이바지한 그는 우리 역사와도 관계가 있다. 해방 직전 약 3년 동안 야지마는 경성제국대학의 물리학 교수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의 경성제국대학 교수 시절의 활동에 대해서나, 또는 당시 그의 제자였던 조선인들에 관해서는 연구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 물론 해방 후 그가 일본에 돌아가 살면서, 또는 그 후에 얼마나 한국인 또는 조선인과 관계하고 있었는지도 알 길이 없다.

1941년 경성제국대학에 이공학부 7개과 추가

원래 그는 일본 도치기현에서 태어났고, 도쿄제국대학 물리학과를 나와 모교 강사를 지내다가 경성제대 교수가 되어 서울로 부임해 왔다. 당시 경성제대에는 그와 비슷하게 일본 도쿄대에서 자리를 옮겨 취임한 교수들이 여럿이었고, 야지마 역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것은 원래 경성제대의 이공학부 설립과 초기 운영이 모두 도쿄대 교수 야마가 신지(山家信次 1887~1954)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이다. 야마가는 도쿄대 공학부 화약과를 졸업하고, 일본 해군의 화약전문가로 활약하며 뒷날 해군 중장까지 승진한 인물이다. 그는 동시에 도쿄대 공학부 교수였는데, 1937년말 중장으로 예편한 다음부터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창설위원회를 만들어 서울에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를 만드는 작업을 맡아 진행했다.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중국대륙 침략 병참기지로서 조선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제는 중화학공업 건설에 나섰고, 이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 및 공업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는 식민지 조선에도 이공학부 대학과정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때까지 한반도 안에는 제대로 된 4년제 이공계 대학은 하나도 없었다. 그 결과 야마가가 주도한 대로 1941년 봄 경성제국대학에는 이공학부가 추가되었다.

원래 1924년 법문학부와 의학부로만 시작되었던 식민지 조선 최초의 본격적 대학에 새로 이공학부가 생겨, 물리학 · 화학 · 토목공학 · 기계공학 · 전기공학 · 응용화학 · 채광야금의 7개과가 태어난 것이다. 일본 해군의 화약청장 등을 역임한 해군중장 출신의 도쿄대 교수 야마가는 1942년까지 교수 27명과 조교수 21명을 충원했다. 야지마 스케도시가 도쿄대 강사에서 경성제국대학 물리학 교수가 되어 부임한 것은 이 때의 일이다.

당시 기록을 보면 야지마는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의 이론 물리학 교수로 밝혀져 있다. 특히 그의 전공은 전자기학이라고 기록되고 있다. 물리학과의 첫주임교수는 오쓰카(大塚明郎)였다. 그런데 오쓰카는 야마가 이공학부장이 경성제국대학 총장에 취임하자, 이공학부장을 맡게 되었고, 야지마가 오쓰카 자리를 이어 받아 주임교수를 맡게 되었다. 이 시기의 그의 조수는 조선 학생 전평수(全平水)였다. 당시 제국대학 시스템은 각 전문분야별로 '강좌'가 설치되었고, 각 강좌에는 담당교수 1명, 조교수 1명, 조수 약간 명을 두는 제도였다. 강좌에서는 각각의 전문 영역의 학과목을 담당했다.

이공학부는 7개학과 및 공통과학(교양담당)에 합계 39개 강좌에 65명의 전임교수가 있었으며, 학생 정원은 320명이었다. 해방 전까지 이곳을 졸업한 조선인 수는 총 37명(선과 1명 포함)으로 당시 일본에 유학한 조선인에 비해서도 매우 적은 인원이었다. 이처럼 경성제국대학의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규모가 작았던 것은 학부의 역사가 짧았을 뿐만 아니라, 경성대학 이공학부가 인력 양성보다는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중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인은 대학 진학 과정에 차별까지 받았기 때문에 경성제국대학에서조차 그 수가 일본 학생보다 적었다. 심지어 물리학과가 처음 생긴 1941년을 보면 교수가 6명 정도였는데 비해 학생은 단 2명뿐이었다.

3년간 경성제국대학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

야지마는 1942년부터 해방 때인 1945년까지 서울에서 물리학과 교수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가 서울에서만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 아마 자주 일본에 돌아가 활약한 것이 분명하다. 그는 1926년 세이코와 결혼했으니까 부인도 서울에 와서 살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부인 세이코는 원래 일본의 전통 노래 연극 가부키로

유명한 집의 딸인데, 어려서 척추카리에스에 걸려 갈비뼈 둘을 절제해 내는 수술을 받고 건강이 좋지 않은 채 살았던 것 같다. 여자대학을 다니다가 병에 걸렸던 그녀는 결혼 이후 가정학, 민속학을 공부하여 어느 정도 성공하기도 했다. 야지마는 1953년에 '가사와 잡용' 이란 이름의 179쪽짜리 책을 부인과 공동으로 낸 일이 있는데, 집안일의 이모저모와 생활의 지혜 등을 엮은 가정상비용 안내서였다. 또 야지마는 1988년 1월 부인이 대장암으로 사망하자 자료를 정리하여 1989년에 '세이코의 발자취' 란 책을 내어 부인을 추억하고 있기도 하다.

야지마의 지도를 받은 당시 경성제국대학 물리학과 학생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당시의 야지마에 대해 자료를 얻기는 어렵다. 다만 그의 조수였던 전평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해 볼 가치가 충분하다. 해방과 함께 그는 서울대 교수가 되었다. 말하자면 지금의 서울대 자연대 물리학과 교수였던 셈이다. 최규남, 박철재, 도상록, 정 근, 전평수, 김종철, 이용태 등이 처음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가 되었고, 이어서 권영대, 한준택이 합류했다.

하지만 군정청이 국립서울대학교 설립계획(소위 國大案)을 1946년 8월 22일 발표하자 그 동안 이를 극렬하게 반대해 오던 좌익계열이 이탈하게 되었다. 9월 5일 이공학부의 좌익계 교원 38명이 집단으로 총사퇴한 것이다. 물리학과에서도 도상록, 전평수, 정 근이 서울대를 떠나 북으로 넘어갔다. 1916년 경북 출생인 전평수는 1939년 도쿄물리학교를 졸업하고, 1942년 홋카이도제국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한 다음, 일본의 이화학연구소에 근무하다가 경성제대 야지마연구실 조교로 귀국한 것이었다. 아마 1946년 월북한 것으로 보이는 그는 김일성대학교 물리학 교수로 활동한 것까지는 알려져 있으나, 그 후 행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대중적인 수많은 과학사 저서 번역 · 저술

전자기학을 담당한 경성제국대학 이론물리학 교수였던 야지마는 서울에 있을 때부터 물리학보다는 과학사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학사학회의 일지를 보면, 그는 1942년 11월 28일 도쿄에 있는 일본의사회관에서 열린 제13회 일본과학사학회 월례회에서 '지나 및 조선에서의 과학사 斷片' 이란 발표를 한 것으로 나와 있다. 경성제대 교수로 있을 때 그는 일본에 건너가 이 발표를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일본과학사학회는 1941년에 창립되었다. 그는 학회의 창립 회원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가 서울에 있을 때 이 학회에 가서 중국과 한국에서의 과학사에 대해 발표했다는 것은 바로 학회 창립 1년 뒤의 일이었다. 일본과학사학회는 학회의 시작과 함께 '과학사연구' 라는 학회지를 발행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야지마는 바로 이 학회지에 수많은 글을 발표했는데, 주로 외국의 과학사학자, 그리고 과학자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1995년 야지마가 죽자, 그를 추도하는 글이 '과학사연구' 34권(1995 겨울, No. 196)에 실린 것은 그가 이렇게 학회를 통해 크게 활약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과학사학자 야지마 스케도시는 실제로 대중적인 수많은 책을 통해 일본의 대표적 과학사학자로 자리 잡았다. 경성제국대학 물리학 교수였을 때 그가 낸 책은 1941년 다른 사람과 함께 외국 책을 번역한 '전기학 실험연구 1 & 2(岩波文庫, 1941)' 가 전부였던 모양이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간 그는 연달아 과학사의 여러 분야를 섭렵하며 책을 출간했다.

1947년에는 자신의 전공분야인 전자기학의 역사를 정리해 '전자이론의 발전사' 라는 170쪽짜리 책으로 냈는데, 파라디에서 맥스웰까지의 전자기학 발달을 개관하고 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과학사의 범위를 넓혀 '과학사와 과학', '물리학사', '세계의 과학', '일본의 과학' 을 내고는, 50년대로 들어오면 '맥스웰', '세계의 과학자' 등을 연달아 출간했다. '근세 과학사', '과학사상사 입문' 이 그 뒤를 이었다.

그의 수많은 과학사 저서 가운데 특히 1977~78년에 번역한 메이슨의 '과학의 역사' 는 더욱 의미가 있다. 이 책은 바로 필자가 1981년 우리말로 번역해 같은 제목으로 출판되어 한국에 과학사를 보급하는데 크게 기여한 셈이기 때문이다. 야지마는 일본에 아라비아 과학사를 소개한 것으로도 기억되고 있다. 1965년에 암파신서(岩波新書)로 낸 그의 책 '아라비아 과학 이야기' 는 그 후에도 계속 발행되고 있으며, 1977년에는 '아라비아 과학사 서설' 이라는 445쪽짜리 대작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19세기 중반 영국의 과학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물리학자 존 틴달을 일본에 소개하는데도 열성이었다. 1948년에 이미 틴달의 '알프스의 빙하' 를 2권으로, 그리고 1950년에 '알프스 여행에서' 를 번역했던 야지마는 틴달의 '촛불의 과학' 을 1984년에 번역했고, 이어 1987년 '알프스 기행' 을 냈다. 특히 그는 1980년 자신의 자서전을 '과학사가(科學史家)의 회상' 이란 제목으로 출판했는데, 이 책에는 '아인슈타인의 내일부터 60년' 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